

【보호자분들께】

◎ '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'

'가정폭력 (부부·커플 사이의 폭력) 을 자녀들이 목격하는 것'

→일본 법률에서는 '자녀들에 대한 심리적 학대'에 저촉합니다.

◎ 보호자의 싸움을 목격한 자녀들에게 악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→예를 들어

- 보호자를 흉내내서 폭력을 휘두르게 된다.
-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폭력을 쓰게 된다.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에게 '난폭한 이'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.
- 언제 싸움이 시작될까 봐 항상 겁에 질리는 생활을 하게 된다.
- 보호자의 싸움을 말리고 싶지만 말릴 수 없는 자기는 '가치가 없다'고 느끼게 되고 '나 따위는 필요없다'고 자신을 잃게 된다.
- 여러 가지로 무기력하게 되고 멍하니 있거나 공부에 집중할 수 없어서 성적이 떨어지거나 한다.
- 학교나 유치원·어린이집에 안 가고 싶어한다. '잠을 잘 못 잔다' '배가 아프다' 등 몸의 이상을 호소하게 된다.
- 항상 걱정을 안고 있어서 쉽게 짜증을 내게 된다.

◎ 경찰은 '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한 부부싸움' '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한 가정폭력 (부부·커플 사이의 폭력)' 을 인지했을 때는 아동상담소에 연락합니다.

◎ 아동상담소는 아동복지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관입니다. '보호자의 싸움이나 가정폭력을 자녀들이 목격했다'고 연락이 있었을 때는 아동상담소에 연락합니다.

◎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싸움 (폭력) 을 삼가도록 하십시오. 부부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논은 필요하지만 대화로 해결이 안 돼 입싸움으로 확대됐을 때는 일단 거리를 두고 흥분이 가라앉은 후에 다시 의논하는 등 배려하도록 하십시오. 의견이 대립해서 의논을 해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자녀들이 없는 장소나 시간대에 의논하도록 하십시오.



埼玉県警察本部

